

# 百濟史와 地名小考

## 扶餘를 中心으로

洪 思 俊

地 名

所在地

- 一、大王浦 扶餘邑雙北里
- 二、自溫臺(碓石) 窺岩面窺岩里
- 三、扶餘頭里 窺岩面扶餘頭里
- 四、破陣山 石城面縣北里
- 五、石城山城(古省城) 〃
- 六、落花岩(墮死岩) 扶餘邑舊校里
- 七、頒詔院 世道面頒詔院里
- 八、自旺里(走自王里) 扶餘邑自旺里
- 九、扶張臺 扶餘邑東東里

歷史를 지니곳은 반드시 傳說이 남아 있게 되고 地名 또한 歷史에 符合된 傳言이 남게 된다고 하겠다. 扶餘는 本是 所夫里의 地名이던 것으로, 百濟 聖王十六年 春 熊津에서 이곳으로 遷都한後 國號를 南扶餘라 하였던 것을 記錄에서 볼 수 있다. 그후 百濟 六七八年 社稷이 羅唐軍 十八萬에 都城이 陷落된 후는 南扶餘가 扶餘로 남게 된 것이다. 百濟王 族은 滿洲地方의 扶餘族으로부터 出發하기 시작하여 南下하여 馬韓 五十四國中 伯濟國을 馬韓王으로부터 割讓받은 以後 慰禮城 熊津을 거쳐 最終所夫里에 定都하는 데서 南扶餘國의 國號를 定立한 것을 推定하겠다.

聖王이 第三都城을 決定하는 데에는 三斤 東城 兩代에 걸쳐서 泗泚原에 三次出獵한데서 그 地勢가 國都로서 遜色이 없었던 것을 確認하고 聖王十六年에 移都한 것으로 推測된다.

三斤十二年九月 王田於國西泗泚原  
三斤二十三年十月 王獵於泗泚東原  
東城二十三年十一月 田於泗泚西原

扶餘의 泗泚都城 內외의 地名에는 聖王以下 威德 惠法 武義 慈 六代에 걸쳐서 一三三年間 남긴 歷史的 地名이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혀 보기로 한다.

### 大王浦

百濟 二十九代 武王 三十七年 三月에 王이 左右臣下들을 거느리고 泗泚河(白江) 北浦에서 놀이를 하였다. 그곳 環境을 보면 두 山기슭에는 奇石怪石이 있고 그 사이에는 奇花異草를 심어서 마치 그림 幅 같았다. 王이 술을 마시고 極히 기뻐 君문고를 뜬시며 王 自身이 노래를 부르니 臣下들도 따라서 여러번 춤을 추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곳을 大王浦라 하였다.

武王三十七年三月 王率左右臣寮 遊燕於 泗泚河北浦 兩岸奇岩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 如畫圖 王飲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人謂其地爲大王浦.

그러면 大王浦의 地點은 과연 어디인가가 問題이다. 이 大王浦의 環境이 두 山줄기에 있는 位置로 그림폭 같다 하였고 北浦라는 地點이 있음을 알게 된다. 扶餘邑 雙北里 白馬江에 接한 곳이 阜蘭寺 東側으로 「뒤개」라 하고 「北浦」라 쓰며 現今도 部落名으로 부르고 그와 같이 쓰고 있다. 그리고 그곳이 兩岸이라 하였는데 落花岩 山줄기와 釣龍臺가 있는 山날이 兩岸이 되며 扶餘山 北 白馬江쪽이 가장 山과 江이 아름다운 곳이 라 하겠다. 그리고 王興寺 앞에서 東方 虎岩寺址로 가는 中間에 다리(橋

의 이름을 王개(浦)다리라고 부르며 王興寺 西쪽 新里에 가는 山頭아름 못(池)이 있는데 이 못의 이름을 王개(浦)못이라 한다. 以上에서 地名을 살펴볼때 大王浦는 지금의 阜蘭寺附近 一帶江을 말한것이라 본다. 그리고 釣龍臺는 龍岩이라고도 하였으니 王을 상징한 龍岩으로 보며 阜蘭寺의 阜蘭草도 當時 奇花異草의 하나가 아니던가 생각된다. 그리고 一九一八年(大正七年)版 朝鮮地理(藤戶計太著) 扶餘條 落花岩을 보면「釣龍臺西便에 있고 百濟 義慈王이 唐羅軍에 破할때 그 妃嬪等이 夜間에 逃遁하여 大王浦에 이르러 斷岸에서 白馬江에 投身하여 죽었다」고 하였으니 六十餘年前까지 이곳을 大王浦라 한것을 알겠다.

한편 扶餘邑 旺浦里를 大旺里라 하여 大王浦가 이곳이라 하는 人士도 있으나 大旺里의 名稱은 大旺里 앞편(坪)이 九龍浦(九龍浦)들과 連陸된 곳을 白馬江 河心이 大旺里 앞을 通過하였던 것에서 九龍浦를 大王浦로 漢字化 하는데서 大旺이들로 號稱한것 같다.

佳塔里에서 大旺里로 들어가는 작은 고개 이름을 「굴왕개」이라 하는 것을 보아서도 九龍개의 大旺里가 된것이며 또한 大旺里 鰓과 九龍개의 地位가 同一 水平인데서도 立證이 된다고 믿어 지는 것이다.

### 自溫臺

三國遺事 南扶餘를 보면 아래와 같은 記錄이 있다.

泗泚江의 언덕에 한 돌이 있는데 十數人이 앉을 수 있다. 百濟王이 王興寺에 가서 禮佛을 할때는 먼저 이 돌에 올라가서 바라보며 拜佛하였다. 그들이 自然히 따뜻 해져서 燠石이라 하였다. 燠石이라 하였다.

泗泚崖又有一石坐十餘人 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 先於巡石 望拜佛 其石自煖因名燠石

燠石은 구들돌(溫突石)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그 燠石이(花崗岩)이 부서져 다만 한 덩어리 塊石에 不過하고 그 바위가 位置한 곳은 구드래 渡船場에서 阜蘭寺로 가는 江邊小路 溪谷과 白馬江邊에 있고 이름을 「가마

바위」라 한다. 이곳에서 江 건너 王興寺가 正面으로 보이는 곳이다. 이 燠石이 구들돌로 이것이 있는 部落을 「구들래」라 한다. 그런데 지금 自溫臺는 窺岩面 옛바위 水北亭 아래 巨岩을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구드래의 十餘人이 앉을 수 있던 燠石이 부스러져서 작은 塊石이 되어버리자 옛바위의 巨岩을 自溫臺라고 朝鮮朝 中葉에 刻字하는 데서 傳說의 自溫臺로 傳해 온듯 하다. 一說의 百濟國을 日本에서 「구다라」라고 하는 것은 구드래에서 緣由된것 같이 日政時代 公州高普教諭 輕部慈恩가 誤傳한데서 지금도 一部人士들이 그 說을 믿고 있는듯 하나, 王權專制國家에서 王宮城가까이 있는 구드래에 倭人出入을 許容할 이도 없었을 것이며 한편 日本書紀를 보면 慰禮城 扶餘 百濟를 모두 「구다라」라고 하였으니 扶餘에 있는 구드래에서 百濟를 「구다라」라고 하였다면 廣州의 慰禮城까지 구다라로 溯及한 것이 된다. 不當한 脆說이라 믿으며 百濟를 「구다라」라 하였음은 百濟 百濟 큰나라의 뜻으로 當時 日本에서 百濟를 불 적에 大國 즉 큰나라의 日本語 發音「군나라」가 구다라로 發音 되었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 扶餘頭里(부머리)

부머리는 部落 이름인데 窺岩面에 所屬한 里名이다. 九龍坪 三千町步의 들 中央에 西에서 동으로 뻗어 내려온 殘山脈의 丘陵을 말한다. 구령개의 錦江堤防이 되기 前에는 「셋강」이라 하여 錦川이 흘렀고, 扶餘方面에서 扶餘머리 部落을 가자면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갔었다. 이곳에는 萬家岱塼(泉)이 있는데 傳言에 萬家가 있었다는 것에서 萬家岱라 하고 우물을 萬家岱塼이라 부르고 있다. 一說에 扶餘머리 部落名은 扶餘에 들어가서 머리가 되었다 하여 扶餘머리라고 한다 하나 實은 萬家岱에는 百濟瓦片이 많이 散在하였고 약 五十여년전에는 甬(鎬)그릇 닦는데 이를 빙아서 썼다고 하는 田一食堂 女主人(扶餘)의 少女時節이야기이다. 그러고 보면 百濟當時에 百濟王家 一門이 王은 宮城에 居處하고 王族들은 이

곳에 集團居住하는 데서 扶餘氏마을이 扶餘머리로 訛傳된 것을 알게 된다. 이곳 우물에 裝置한 네모골의 빈지(井字形)를 짠 石材가 代理石인데 빈지 네귀에는 물둥이를 놓았던 자리가 약 2cm 정도 패있고 윤이나 게 많은 것은 人家가 많았던 것을 立證하며 이 部落은 扶餘마을이 扶餘머리로 된 것으로 百濟王族 扶餘氏의 集團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 破陣山

傳說에 百濟가 亡할때 百濟軍과 唐兵이 이곳에서 激戰하다가 唐軍을 破하였던 關係에서 山名을 破陣이라 하였다는 것인데 唐書에:『賊傾國來拒大戰 破之殺虜萬餘人』이라는 記錄이 있음을 보아서 或은 百濟軍이 戰敗한 것을 賊兵을 破한 듯이 傳하는 지도 알 수 없다. 한편 石城舊誌를 보면 破陣山은 縣西四里로 山崖石壁이 바지(袴)를 걸어 놓은 모양을 하여서 「바지」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實際 그곳을 가보면 두다리를 벌리고 있는 形態의 바위가 江左岸에 있다. 그리고 보면 破陣山은 바지山에서 變稱한 것으로도 생각되며 位置는 石城山城에서 南方山岸에 위치한다.

### 石城山古(古省城)

이 山城은 石築城으로 되고 周圍가 一、五〇〇m이고 錦江 左岸에 位置한 山城으로 百濟都城인 泗泚城을 防衛하던 百濟羅城에서는 南十里에 位置하고 石城面에서는 西北에 있다. 이 山城 西麓에는 百濟時代의 印江寺址가 있고 이 城 西南山谷의 골(谷)이름이 「古省」이라는 部落이 있다. 百濟國이 滅亡後 九年에 新羅 文武王 十二年 春正月에 文武王이 將兵을 보내어 百濟 古省城을 쳐서 이기고 二月에는 百濟 加林城(聖興山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十二年春正月 遣將攻百濟古省城 克之 二月攻 百濟加林城不克

위의 古省部落과 林川加林城과는 直線距離 十五里程度이다. 이곳 古省部落은 古省山城이 있어서 古省이란 洞名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겠고 지금 石城山城은 옛날 百濟時代 古省城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參考) 印江寺址와 古省部落 中間 山谷이름을 「만차실」 또는 「田禹治골」이라 한다. 이 山谷 막바지에 가보면 朝鮮朝時代 瓦當片이 無數히 흩어져 있는데 石城縣誌를 보면 生進에 田禹治는 南陽人이다. 錦江左岸 扶餘郡 石城面 縣北里 所在 破陣山 西麓 古寺에서 一心精力으로 工夫한 적에 山神을 만나 秘訣冊을 얻어서 幻術이 世上에 傳했다 하는 幻術家이다. 이곳 石城에서 生長하고 이 田禹治골에서 工夫한 것을 알게 되는 데 때는 朝鮮朝 中宗時人으로 于野(柳夢寅號)談에 나오는 人物이며 黃海道 信川 獄中에서 死亡한 것으로 되었다.

### 落花岩(墮死岩)

三國遺事 太宗春秋公條를 보면 百濟古記에 扶餘城 北角에 大岩이 있는데 그 아래로는 江水에 臨해 있다. 相傳하기를 義慈王妃가 後宮들과 더불어 唐兵에게 辱을免치 못할것을 알고 서로 이르기를 차라리 自盡하여 他人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여 이곳에 와서 江물에 몸을 던져 죽어 그리하여 墮死岩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후 墮死岩이 落花岩으로 美花된 것을 알게 된다. 落花岩 東쪽에 자리잡고 있는 阜蘭寺가 百濟當時부터 있던 절이라고 近來에 와서 말하고 있으나 實은 阜蘭寺 位置와 方向乃至 寺院境內等을 考慮하여 보면 高麗以後의 寺刹인 것으로 認識하겠고 또 境內에 있는 蓮花 方形礎石들을 考察하면 高麗時代의 柱礎이다. 구드래 某家에서 收拾한 自然版石으로 된 碑에 韓啓源作으로 된 漢詩가 새겨져 있는데 아래와 같은 文句가 있다.

登樓聞夕磬 臨壁惜殘春  
天授二年剎 重回口近

樓門에 올라 앉아 저녁 종소리를 들으니 石壁에는 殘春이 아쉽더라.

大授二年에 된 절을 두번이나 들었고나. 이 漢詩는 阜蘭寺에 對한 詩인 것과 高麗 王建太祖二年에 된 것을 알게되며 高麗史에서는 阜蘭寺의 阜가 아니라 高로 되어 있음을 보아서 落花岩에서 던져진 宮娥의 魂을 高蘭에 비하여 慰靈하였던 高麗 王建二年에 創寺한 절임을 알겠다.

一說에는 落花岩이 扶餘邑 中井里所在 「꽃바위」가 그것이란 사람도 있다. 이 꽃바위는 一名 「아기바위」或은 「어분바위」라고도 하는데 이 꽃바위를 살펴보면 頂上에 方形 二重穴이 있다. 이 二重穴은 百濟時代에 어떤 目的에서 人工으로 파는지는 알수 없으나 나무로 角木을 꽃았던 關係에서 꽃(挿)은 바위가 꽃(花)바위라 하여 落花岩 位置가 이곳이라 한 것으로 믿어진다. 參考로 全北 井邑에 斗升山은 山頂岩上에 斗와 升과 같은 크기의 二重穴이 있음에서 斗升山이라 한다면 이 斗升山에는 百濟時代 城址가 있음으로 해서 百濟當時의 人工的 二重穴임을 알게 되고 꽃바위의 二重穴 亦是 同時代의 工作物이라고 믿어진다.

### 領詔院

이 院자리는 扶餘郡 世道面 領詔院里 錦江 右岸에 있다. 傳說에 唐 蘇定方이 이곳에 와서 唐將兵에게 唐나라 高宗의 詔書를 領布하였던 곳이라 하여 領詔院이라 한다고 한다. 扶餘邑에서 直線距離 十五里이며 漚(船)길로는 二十里의 錦江 右岸에 位置하여 있으며 前日에는 穀物集散地였으며 石城面 鳳亭里에서 나룻배로 往來하는 要路이기도 한 同時에 옛날 世道面事務所가 있던 곳이다. 舊唐書에 「直趨其都 去城二十許里 賊傾國來拒大戰 破之殺虜萬餘人」과 唐書에 「夾引直趨其都城 賊傾國來酣戰 破之殺虜萬人」과 資治通鑑에 「直趨其都城 未至二十餘里 百濟傾國來戰 大破之殺萬餘人」과 三國史記 義慈王 二十年 「將兵騎 直趨其都城 一舍止 我軍悉衆拒之 又敗死者萬餘人」이라 한 곳이 바로 領詔院인 것과 아울러 百濟兵卒이 唐軍과 싸워서 이곳에서 萬餘人이 殺虜된 것도 알게 된다.

한편 金庾信 五萬軍과 階伯 五千兵이 七月十日에 黃山原에서 決戰하게

되었는데 蘇定方과 金法敏과의 軍約으로 七月十日을 期하여 百濟都城을 總攻擊하기로 하였으나 이 戰鬪에서 金庾信이 하루를 늦게 되었다. 金庾信이 이곳 領詔院에 留陣하고 있는 蘇定方에게 와서는 七月十日의 違約을 말하였으나 蘇定方은 軍約을 어겼다는 것을 트집 잡고 新羅督軍 金文顯을 軍門에서 斬하려 하였다. 金庾信과 蘇定方과의 當時 談判狀況을 新羅 太宗武烈王 七年條를 보면 아래와 같이 있다.

庾信等至唐營 定方以庾信等後期 將斬新羅督軍 金文顯於軍門 庾信言於衆曰 大將軍不見黃山之役 將以後期爲罪 吾不能無罪而受辱 必先與唐軍 決戰然後 破百濟 乃杖鉞軍門 怒髮如植 其腰間寶劍 自躍出鞘 定方右將 董寶亮 躡足曰 新羅兵將有變也 定方乃釋文顯罪

庾信 등이 唐營에 오자 定方이 庾信과의 後期로써 新羅督軍 金文顯을 軍門에서 斬하려 하니 庾信이 軍衆에서 말하기를 「大將軍이 黃山의 戰鬪는 보지 아니하고 後期를 罪로 삼으니 내 어찌 罪없이 受辱하라 먼저 唐軍과 決戰하고 나서 百濟를 破하리라」하고 軍門에 杖鉞할적에 怒한 얼굴엔 머리카락이 곤두섰고 그허리에 찬 寶劍이 스스로 칼집에서 어났다. 定方の 右將 董寶亮이 定方에게 말하기를 「新羅兵이 變이 있는듯하다」고 하자 定方은 겨우 文顯의 罪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激烈한 庾信과 定方과의 言討한 곳이 바로 領詔院이며 歷史的 遺址라 믿어 마지 않는다.

### 自旺里

本是는 走自旺里를 注自旺里로 漢字를 바꾼 것이고 더 簡略하게 自旺里로 된 것이다. 이곳은 扶餘邑 自旺里로 錦江 右岸에 位置하고 靑陽郡 靑所面 왕진나루의 對岸이다. 傳說에 百濟義慈王이 全王 二十년에 唐羅軍이 百濟 泗沘城을 攻擊하자 義慈王이 公州로 避身하기 위하여 宮城을 벗어나 이곳에서 배를 타고 出駕한 곳이라 하여 走自旺里라고 한다는 것이다.

三國史記를 보면 新羅 太宗武烈王 七年 七月 十三日에 義慈王이 左右 臣을 거느리고 밤에 逃走하여 熊津城에 있다가 義慈王子 隆이 大佐平千 福들과 出降하는 바람에 十八日에는 義慈王이 太子와 熊津方領(北方領) 軍等과 熊津城에서 泗沘城에 와 무릎을 꿇었다는 記事와 義慈王 二十年에 唐兵이 乘勝簿城하니 義慈王이 出降을 免치 못할 것을 알고 嘆息하기를 成忠의 忠言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드디어 太子 孝와 北으로 逃走하였다는 記錄에서 泗沘城을 떠나 이곳에서 公州로 出發하던 地點이기도 하다. 史乘에서는 다만 北쪽 熊津城으로 逃走하였다고 하는 記錄이나 鷄龍面 良化里所在 新元寺에서 車側山麓을 돌아 古王庵이라는 庵子를 가보면 이곳은 義慈王이 避身한 곳이기 때문에 古王庵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近處의 馬鳴庵址는 義慈王의 말이 울었다고 하여 馬鳴庵이라고 한다. 이 두 庵子들이 있는 山谷에는 山谷을 三段으로 가로막아 石城을 쌓아 隱身處로는 適當한 山谷이다. 또한 新元寺入口 右側山峯에 百濟 石城이 있는데 城名이 耽國城이라고 하며 이 耽國城 南側이 論山郡 半月面和 鷄龍面の 面界인데 半月面 石宗里는 行政區域을 定하기 前에는 杏亭이란 部落이라고 한다. 耽國城엔 杏亭(상주군 이 있던 곳)이 있으며 耽國城의 이름은 義慈王이 나라를 부끄럽게 망했다는 데서 後人이 命名한 듯하다.

### 부장(扶張)골

扶餘郡廳에서는 西北方이 되고 百濟時代 泗沘城안 內城에서는 西南隅에 位置한 平平한 山등성이며 行政區域으로 扶餘邑 東南里 山등성의 西麓 俗地名이 「부장골」이다. 前日에는 人家가 十餘戶에 不過하였다가 現今에 와서는 부장골의 東便이나 西便에 많은 聚落이 形成되어 있다. 이곳 부장골 山은 百濟都城에서 본다면 市街中央에 位置한 평평한 山이나 이 山上에서 보면 四方이 眼下에 잘 보이는 場所이다. 日本書紀를 보면 欽明十六年條에 聖王은

### 妙達天道地理 名流四表八方

天道와 地理에 妙達하며 그 名聲이 四方八面に 떨친다 하였고 聖王 三十二年에는 易博士 德施 王道良 曆博士 王保孫을 日本에 보냈으며 其後 百濟 武王 三年(日本 推古天皇)에 百濟僧 觀勒으로 曆本과 天文地理書를 가지고 日本에 渡海한 記錄이 있어 百濟國에서는 이미 曆本과 天文과 地理를 實用하였던 것을 可히 推定할 수 있다.

百濟國都가 二次나 遷都되어서 尉禮城과 熊津時代에 日月星辰을 觀察하던 場所와 日官이 執務한 官衙位置 등은 全然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泗沘城時代에 와서는 모든 文物이 完備되고 國家가 安定되어 政府機能이 제대로 活動을 하게 되자 日官이 天體의 星座 移動을 觀測하던 이 扶張臺도 그 役割을 다하다가 國運과 더불어 사라진지 一千有餘年에 그 臺가 있던 山 밑에 部落이 形成되면서는 扶張臺의 臺址조차 없어지고 다만 傳言으로 부장臺 이름이 부장골 洞名으로 流轉한 것으로 알겠다.

扶字는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扶이고 張은 二十八宿의 별 이름 中에서 二十六번의 張星이다. ① 즉 張星을 바라본(扶) 觀星臺로써 慶州의 月城北側에 자리잡고 있는 新羅時代 比斗를 오늘날에 瞻星臺라 하여 일러오거니와 扶餘의 百濟 宮城址에서 南南西方 「부장골」洞名은 扶張臺가 있던 氣象臺地에 의한 「부장골」로 洞名이 된 것이라 하겠다.

二十八宿中에 張星은 武具인 활(弓)을 象徵한 별이며 그래서 百濟國에서는 무엇보다도 隣國과의 侵攻戰亂을 豫知할 수 있는 張星을 주로 注目했던 二十八宿의 星座 移動을 觀測한게 아닐까 생각된다. 慶州 瞻星臺 自體가 井星에 의한 石造物로 風雨에 主眼하였다면 扶餘 扶張臺란 戰爭 豫測에 主眼한 觀星이라고 보아진다. 한편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살펴 보면 天候를 觀察하였던 日者 즉 日官이 있다. 日官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任務라면 모르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도 特殊한 技術職에 屬하는 것으로 古代에 있어서도 星占學인 만치 거기에 附隨된 別途 官制와 官員 官廳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百濟本紀에 나타난 日蝕과 其他 太白星 彗星 長星이며 二十八宿에 關

한 占星한 것을 溫祚王에서 武王代까지 抄出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溫祚王 六年 七月 辛未晦 日有食之

二〇年 二月 王宮井水暴溢、漢城人家馬生牛一首二身 日者曰井

水暴溢者 大王勃興之兆也 牛一首二身者 大王并隣國之應也

四三年 九月 鴻鴈百餘 集王宮 日者曰鴻鴈民之象也 將有遠人

來役者乎

四六年 夏五月 戊午晦 日有食之

己婁王 一一年 八月 乙未晦 日有食之

蓋婁王 二八年 正月 丙申晦 日有食之

肖古王 五年 三月 丙寅晦 日有食之

二一年 十月 星孛于西北二十日而滅

二四年 四月 丙午朔 日有食之

二六年 九月 蚩尤旗見于角亢

三九年 十月 星孛于東井

四〇年 七月 太白犯月

四七年 六月 庚寅晦 日有食之

仇首王 八年 六月 戊辰晦 日有食之

九年 十一月 庚申晦 日有食之

一一年 十月 太白晝見

古爾王 一六年 正月 甲午太白襲月

三六年 九月 星孛于紫宮

汾西王 五年 四月 彗星晝見

比流王 五年 正月 丙子朔 日有食之

一三年 大星西流

一八年 七月 太白晝見

三〇年 五月 星隕王宮火連燒民戶

三二年 十月 乙未朔 日有食之

三三年 正月 辛巳 彗星見于奎

近肖古王 二三年 三月 丁巳朔 日有食之

近仇首王 一〇年 二月 日有暈三重

辰斯王 六年 七月 星孛于北河

八年 五月 丁卯朔 日有食之

阿莘王 三年 七月 太白晝見

四年 二月 星孛于西北

九年 二月 星孛于奎婁 六月 庚辰朔 日有食之

腆支王 一一年 五月 甲申 彗星見

一三年 正月 甲戌朔 日有食之

一五年 正月 戊戌 星孛于太微 十一月 丁亥朔 日有食之

毗有王 一四年 四月 戊午朔 日有食之

二八年 星隕如兩 星孛于西北

一四年 十月 癸酉朔 日有食之

蓋鹵王 二年 三月 己酉朔 日有食之

一七年 五月 甲戌朔 日有食之

武寧王 一六年 三月 戊辰朔 日有食之

聖王 一二年 四月 丁卯 熒惑犯南斗

二五年 正月 己亥朔 日有食之

二七年 正月 庚申 白虹貫日

威德王 六年 五月 丙辰朔 日有食之

一九年 九月 庚子朔 日有食之

二六年 十月 長星竟天二十日而滅

三九年 七月 壬申晦 日有食之

四一年 十一月 癸未 星孛于角亢

武王 四一年 正月 星孛于西北

앞에 記錄에서 太白이 出現한 것이 五件

肖古王 四〇年 七月 太白犯月

仇首王 一一年 十月 太白晝見

古爾王 一六年 正月 甲午 太白襲月

比流王 一八年 七月 太白晝見

阿莘王 三年 七月 太白晝見

彗星이 出現한 例가 二件

汾西王 五年 四月 彗星晝見

腆支王 一一年 五月 甲申 彗星見

長星이 出現한 것이 一件

威德王 二六年 十月 長星竟天二十日而滅

인대 이 세별이 出現하면 國家가 不安不吉하다는 별들이다.

다시 二十八宿과 星字한 例를 枚舉하면

肖古王 二六年 九月 蚩尤旗見于角亢

肖古王 三九年 星字于東井

比流王 三三年 正月 辛巳 彗星見于奎

阿莘王 九年 二月 星字于奎婁

聖王 一二年 四月 丁卯 熒惑犯南斗

威德王 四一年 十一月 癸未 星字于角亢

以上 六件이고

古爾王 三六年 九月 星字于紫宮

辰斯王 六年 七月 星字于北河

阿莘王 四年 二月 星字于西北

腆支王 一五年 正月 戊戌 星字于大微

毗有王 二八年 星字于西北

武王 四一年 正月 星字于西北

以上 星字가 六件이다.

近者에 부장골 뒷산에서 百濟時代 無紋博과 瓦片이 出土되었다는 것

은 百濟時代에 이미 建築物이 있었다는 것을 傍證한다고 思料되는 同時에 注目할 만한 出土遺物이다.

註

① 二十八宿은 角亢에서 尾箕가 東七星, 斗牛에서 室壁이 北七星, 奎婁에서 觜參이 西七星, 井鬼에서 翼軫이 南七星인데 右에서 左로 順位를 잡는다. 張星은 南七星中星의 右翼의 左에 位置한다.

(一九七九, 三, 一〇)

